

5월의

계란가격망



송 상 정
(본지 편집위원
아람농장 대표)

◎ 개 황

국회 개원의 공방과 대통령 미국방문 등 어수선한 가운데 4월을 보내는 기분이다. 일반 시장경기 불황과 더불어 쇠고기값 연동제에 따른 육류가격 하락과 난가하락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면서 5월을 맞이 하는가 보다.

◎ 생산측면

85년 1월에서 3월중 산란초기와 산란용 어린병아리 사료생산량은 하기와 같다.

1월 77,229톤, 2월 77,319톤, 평균 77,274톤에 비하여 3월 생산량은 83,301톤으로 1, 2월 평균대비 8% 증산이 되었다. 산란용 어린병아리 사료 생산량은 1월 2,423톤, 2월 2,541톤 평균 2,482톤이며, 3월달은 4,041톤으로 1, 2월 평균대비 39% 증산된 것을 보면 금년 후반기의 계란값이 대략 윤곽이 설것도 같다. 계절도 년중 제일 많은 계란

을 생산할 수 있는 계절이고 하여 계란값은 좋게 형성되기는 어려웠었다.

강제 환우계와 더불어 노계의 생산성이 얇은 닭은 5월 중하순 특란 50원 이하로 하락될 때에 대비하여 65% 미달의 닭은 빨리 도태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우리 나라는 모내기 철에 비교적 노계값이 유리하므로 실기하지 말고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 예상단가

4월하순에 특란 58원에서 55원으로 3원이 떨어지면서도 체화물량을 5월로 넘기는 것 같다. 꽃놀이도 끝나가고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제과공업용 수요격감은 가격하락을 부채질할것 같다. 5월 중하순경에 특란은 50원 벽이 무너져 내려가게 되므로 판매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며 불결한 난좌를 선별하여 깨끗한 곳에 담고 오란, 파란 등은 엄격히 구분하여 상품의 질을 높여야 할것 같다.